



선택과 결단

[고전 2 : 1 - 5]

민영완

(서울·강서교회 목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 : 1-5)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선택과 결단은 절대 필요하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촉구했던 것이나(수 24:15),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왕상 18:21).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단회적, 유일회적(唯一回的)인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란 계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이란 한 번만으로 가능하지만 자기 결단은 필요에 따라 평생을 두고 계속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기 바울의 계속적인 결단을 보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를 믿기로 작정한 행위가 바울의 종교적인 선택이라면 그 후 주님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로써 계속적인 자기 결단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여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강력한 자기 결단을 의미하고 있다. 바울이 이처럼 결단을 내리고 있는 배경은 그의 아테네 전도에서의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차원 높은 메시지였다. 아테네에서의 설교가 비록 철학적이고 조직적인 설교요, 설교학적으로 볼 때에도 완벽에 가까운 멋진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허무에 가까운 것이었다. 결신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행 17:).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쓰디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 고린도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새로운 전환이요, 새로운 결단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전한 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결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I. 결단이란 자신의 지혜를 포기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당대 바울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 바울도 자기의 지혜를 포기하는데 우리가 어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울같이 깨끗이 포기하는 결단성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단이란 자기의 지혜를 포기하는 동시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II. 결단은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함을 말한다.

고전 1:22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사실 바울은 이적을 행하는 데도 힘쓰지 않았고 이적을 행한 기록도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지혜나 지식에 연연하지도 않았다. 바울의 복음적 생애를 본다면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평생 십자가의 흔적을 깊이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갈 6:16). 이것이 바울 신학의 기저(基底)가 되고 있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나타난 능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십자가를 몸소 질 때 힘이 분출되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주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고 산 제물이 되는 자기 결단이 믿음 생활이 아닌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라는 결단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약하고 비굴해질 때가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제 2의 결단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진보하고 발전, 성장한다는 것은 여기에 상응하는 제 2, 제 3의 결단이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 단회적인 선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항상 새로운 결단으로 영육간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니엘의 결단이 무엇

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자기 결단이다. 사자 굴 속에서도, 무수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과 생명까지도 지키게 된 것이 이 결단—그가 계속해서 내린 결단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할 때 오늘 역사 속의 다니엘이 창출되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을 보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준수한 사울 왕을 보라! 예수님의 사도로서 전대를 맡길 정도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를 보라! 그들의 비참한 최후와 말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처음 출발은 좋았고 선택은 화려했으나 제 2의 결단이 없었기 때

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다.

이에 반하여 다윗과 같은 인물은 깊은 실패와 죄악으로 말미암은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으나 곧 회복하여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회개, 자기 반성, 깊은 자기 각성이라는 제 2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는 여호수아의 결단,

“.....어느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참 신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참 신이면 그를 좃으라.”(왕상 18:21)고 촉구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의 결단만이 신앙의 위기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파수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 완수에 부응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설교학·설교 자료 안내

개혁주의신행협회 간행

설교자像

존 스타트 저/값 1,500원

나의 설교론

박희천 저/값 5,000원

그러므로의 생애

오병세 저/값 3,000원

데살로니가전서

벨드캠프 저/값 1,800원

아모스 강해 (9월 간행 예정)

벨드캠프 저/값 3,000원

소요리문답 강해

G. I. 윌리엄슨 저 / 값 3,500원, 4,500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G. I. 윌리엄슨 저
값 5,000원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골든 H. 클락 저/값 5,000원